

## 국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행위조사·분석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by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user's behavior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이수경\* / Lee, Soo-Kyung  
김용승\*\* / Kim, Yong-Seung

### Abstract

The study aims to find out the changing aspects of contemporary Korean libraries so called public in terms of their spatial configuration. In so doing, it analysed 14 recently built libraries by investigation of user's behavior. Interview and observation were conducted as a method of investigation. The method of analysis was based on statistics by mapping spatial data.

As the result, it could be said that most users have a clear goal in Korea. In some librarie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behavior show that users visit other functional rooms including functional rooms for the purpose.

It could be said that the configuration of space in recently public libraries become more public as a place.

In view of domestic affairs, in terms of users need, the reading room for personal study have features of the most private room and a static activity. so that the reading room separate from the other functional rooms in floor, but it adjoin other functional rooms in the horizontal configuration. so its location make offset a role of functional rooms can be interactive with each other, except reading room.

키워드 :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이용자행위

Keywords : Public library, Spatial configuration, Behavior of user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공공문화와 공공공간은 우리가 도시 안에서 공적생활을 경험하는 공간인 거리, 상점, 공원들에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많은 사회적 만남에 의해서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즉, 쇼핑센터(mall), 레스토랑, 그리고 다른 많은 사회적 장소(setting)처럼 도서관은 개인이 다양한 사회활동과 정보활동에 흥미를 갖을 수 있는 공공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도서관은 건축시설로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갖춰야하는 가치, 그리고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이용자의 요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현대적인 공공장소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신설되는 도서관에는 계층별, 자료유형별로의 구분과 전산시스템과 개방화로 인한 개인열람부분의 감소, 공용부분의 증가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시설의 개축 및 전용부분에서는 공용부분을 감소하여 요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국민 정보이용권 및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국민 5만명당 1개관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용자의 요구변화 및 사회역할 변화적 측면에서 현대 도서관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여, 진정한 공공도서관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에 이용자 행위 및 요구사항을 통하여 공공시설로서 수행되는 도서관의 공간구성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정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 정희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중 이용자 공간을 대상으로, 사용자들의 경험을 연구하기 위한 접근 방식 범주로서 개인 설문면접과 각종 형태의 관찰조사를 수행하였다.

즉, 이용자들의 공간 사용상의 관련성과 실제 공간구성간의 근접성을 비교분석, 요구사항의 적용을 통하여 공간구성을 분석한다.

## 2. 이론적 고찰

### 2.1.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분류

건축계획에 있어 공간구성은 기능에 대한 필요한 공간을 개개의 구체적 설명 보다는 약간의 포괄적인 공간의 호칭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의 기준은 이용자, 열람실의 출납시스템, 이용목적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선 대부분 광의적으로는 이용주체에 따라 이용자부분과 운영자부분으로 구분하며, 협의적으로 열람부문, 교육/집회, 업무/관리, 서비스, 기타의 5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 세부구분사항에 있어서 다양한 실들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해 분류하는데 있어서 극히 불명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실정에 효과적으로 계층, 이용행태, 지역특성들을 고려하여 제안한 이수경, 김용승(2007)<sup>1)</sup>의 공간구성 중 이용자 부분의 12개 세부구분 중 유아/가족열람과 아동열람을 하나의 구분 즉, 어린이 열람으로 적용하여 11개 기능실로 제안하여 조사의 지표의 기준으로 설정 분석하였다.

<표 1>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부분 공간구성

구성요소	세부구분 (기능실)	내용					
이용자부분	자료부분	<table border="1"> <tr> <td>도서자료</td><td>참고자료실, 종합자료실 (인문자연과학실, 예술어문학실), 정기간행물실, 신문자료실, 향토 지방행정자료실, 복사실 등</td></tr> <tr> <td>비도서자료</td><td>디지털 자료실, 정보검색코너, 멀티문화감상실, 전자(정보)자료실, 미디어자료실 등</td></tr> </table>	도서자료	참고자료실, 종합자료실 (인문자연과학실, 예술어문학실), 정기간행물실, 신문자료실, 향토 지방행정자료실, 복사실 등	비도서자료	디지털 자료실, 정보검색코너, 멀티문화감상실, 전자(정보)자료실, 미디어자료실 등	
도서자료	참고자료실, 종합자료실 (인문자연과학실, 예술어문학실), 정기간행물실, 신문자료실, 향토 지방행정자료실, 복사실 등						
비도서자료	디지털 자료실, 정보검색코너, 멀티문화감상실, 전자(정보)자료실, 미디어자료실 등						
열람부분	<table border="1"> <tr> <td>열람</td><td>일반열람실, 청소년열람실, 배움터 등의 명칭으로 학습실(독서실)기능을 하는 열람실</td></tr> <tr> <td>어린이 열람</td><td>모자열람실(자료실) 어린이 열람실(자료실)</td></tr> <tr> <td>노인/장애인열람</td><td>시각장애인자료실, 접자자료실, 실버자료실, 노약자실</td></tr> </table>	열람	일반열람실, 청소년열람실, 배움터 등의 명칭으로 학습실(독서실)기능을 하는 열람실	어린이 열람	모자열람실(자료실) 어린이 열람실(자료실)	노인/장애인열람	시각장애인자료실, 접자자료실, 실버자료실, 노약자실
열람	일반열람실, 청소년열람실, 배움터 등의 명칭으로 학습실(독서실)기능을 하는 열람실						
어린이 열람	모자열람실(자료실) 어린이 열람실(자료실)						
노인/장애인열람	시각장애인자료실, 접자자료실, 실버자료실, 노약자실						
교육부분	집회부분	강당(시청각)					
	교育(강의/실습)	강의실, 세미나실, 토론실 등					
서비스부분	매점/식당(주방)	카페, 매점, 식당, 카페테리아 등					
	전시	전시코너, 전시실, 정보관(체험관)					
	휴게	실내휴게실, 휴게라운지, 실외 테라스형 휴게실					
특성화부분	연구, 공연	연구실, 공연장, 천문대 등 도서관 특성화실(자료특성화제작)					

1)이수경·김용승, 최근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27권 제1호, 2007, p.114

### 2.2. 공공공간에서 사회적 활동 연구에 관한 접근<sup>2)</sup>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 공간의 연구는 공간의 시간별 기록들(spatial time-diaries) 또는 공간의 관찰처럼 입지조사 및 매핑, 인지 또는 지각 매핑, 그리고 행동을 추적하는 것을 포함하여 종종 공간방법론(spatial methodology)의 일부유형을 사용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들은 모든 상황에 유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발생한다. “어떤 접근방법이 사회활동공간들을 연구하는데 적합한지?”

크롬레이(Cromley)<sup>3)</sup>는 “공간 데이터의 맵핑 (Mapping spatial Data)”이라고 칭하는 방법론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했다. 그녀는 공간데이터의 사용을 개인, 커뮤니티 / 지역, 공공기관의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 방법은 서로 다른 유형 및 규모들의 활동공간들을 토론할 때 체계화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개인들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둘다의 사회적 활동 공간들을 갖고 있다. 사적공간들은 종종 가정과 같이 제한되어지는 반면에 공적활동공간들은 때론 전체도시처럼 거대하다.

인류학자들과 민족학자들은 때론 그들의 공동 공간(communal space) 내에서 가족들의 활동들의 자세한 관찰에 의해서 수행되지만, 거의 대부분은 개인들의 사적인 활동공간들 안에서 조사가 수행된다. 관찰은 공간 내의 각 가족 구성원의 움직임과 관련된 활동들의 상세한 기록 지도를 개발하는데 사용 된다.

지리학자는 또한 사적활동 공간들과 공적활동 공간들 둘다를 포함하며, 개인들의 활동공간들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조사들은 그들의 활동공간들 안에서 개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들이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공간-이용시간(space-time budget)이라 알려진 접근방법을 발전시킨 헤거스트란트(Hagerstrand)<sup>4)</sup>에 의해 수행되었다. 최근 공간-이용시간의 예로는 아담스(Adams)<sup>5)</sup>에 의한 개인의 확장성(personal extensibility) 모형에서 나타나며, 크레이크(Craik)은 환경 심리학에 근거를 둔 매우 유사한 방법론인 하루 분석(lived-day analysis)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또 다른 기술인 인지 매핑(cognitive mapping)은 또한 개인

2)Lisa M. Given & Gloria J. Leckie, "Sweeping" the library: Mapping the social activity space of the public librar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5, 2003, pp.368-372

3)Cromley, E. K.(Ed.), Mapping spatial data, Mapping social networks, spatial data, and hidden populations,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1999, pp.51-123

4)Hagerstrand, T.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Papers and Proceeding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4, 1970, pp.7-21

5)Adams, P. C., A reconsideration of personal boundaries in space-time,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 1995, pp.267-285

의 활동공간들의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인류학자, 지리학자,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다. 인지 매팽은 어떻게 사람들 이 환경에 대하여 공간적 정보를 배우고 기억하고 처리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sup>6)</sup>

커뮤니티와 지역의 자치 활동 공간들은 동네, 마을, 도시, 그리고 더 큰 지역, 더 나아가 국가규모까지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큰 맥락 안에서의 활동 공간의 연구들은 기존의 매팽 기술을 통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특정 활동기능이 있는 놀이터처럼 그리고 그 공간들이 존재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이나, 사용할 수 있는 특정 사람, 그리고 어떤 활동공간들을 배치 함으로써 얻어지는 다른 변수들이 부과되는 경우, 기존의 매팽 기술들은 즉, 도시 및 지역 분석 등과 같은 특히 큰 단위에 있어서 통계조사를 사용하고 보정을 하게 된다.

더군다나 크롬레이는 공간적 데이터는 비교적 큰 규모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기존 매팽방법에 개인인터뷰, 관찰, 설문조사 등의 다른 방법론들이 혼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개인의 활동들이 확대되어 공공기관의 활동 공간들 즉, 학교, 도서관, 레크리에이션 센터, 교회, 정부 기관, 사무실, 은행, 식당, 영화관, 테마 파크,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활동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활동 공간들에 관계한 방법론 중 하나는 최적의 위치를 알기위해 모델 및 입지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이다.<sup>7)</sup> 입지 분석은 사적인 활동 공간들(예: 영화관, 소매상점, 쇼핑몰)과 공적인 지원 활동 공간들(예: 레크리에이션센터, 도서관, 학교) 모두에서 사용된다.

전술된 방법론들은 다양한 사회활동 공간들의 맥락 안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흥미로운 5가지 질문들을 조사하기위해 사용될 수 있다.

(1) 특정 물리적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실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하길 선호하는지

(2) 어떻게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방문하는 곳의 공적 영역과 사적 공간을 인식하는지

(3)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장소가 의미 있게 되며 왜 그렇게 되는지

(4) 사람들이 어떻게 복잡한 환경 내에서 이동하는지

(5)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이 공공공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들을 더 잘 충족하는 공공공간들을 디자인하게 되는지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 다섯 가지 사항을 토대로 인터뷰 및 추적조사의 체크리스트 조사 맵을 구성하였다.

6)Kitchin, R., & Freudschuh, S.(Eds.), Cognitive mapping: Past, present and future, London, UK: Routledge, 2000, p.2

7)Sule, D., Logistics of facility location and allocation, New York, Marcel Dekker, 2001

### 3. 조사대상 선정 및 방법

#### 3.1. 조사대상 선정

분석대상 공공도서관은 1990년 이후에 개관한 전국의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sup>8)</sup>으로, 도서관법 시행령<sup>9)</sup>에 따른 기준을 참고하여 연면적 3,300m<sup>2</sup>이상의 대규모이상의 도서관으로 한정한다. 또한 국내 건축 잡지에 많이 소개된, 인지도 있는 성공적 사례를 선정하기위해 수상내역을 참고하여 중규모인 2개관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대상 도서관개요

기호	도서관명	개관년월	연면적(m <sup>2</sup> )	건축규모	건축관련 수상내역
A	수원선경도서관	1995.4	8,312	B1-3F	1995건축문화대상
B	일산시립마라도서관	1999.5	3,851	B1-3F	1999건축문화대상 제5회경기도건축문화상
C	온평구립도서관	2001.10	5,059.99	B1-3F	2001건축문화대상 2002서울특별시건축상
D	도봉문화정보센터	2001.10	3,111.40	B1-2F	2001건축문화대상
E	성북정보도서관	2002.3	6,667	B2-5F	
F	김해시립 장유도서관	2002.4	6,720.45	B1-3F	
G	청주시립정보도서관	2003.9	5,370.19	B1-3F	청주시 아름다운건축상
H	수지도서관	2004.7	3,834.18	B1-3F	
I	파주시립중앙도서관	2005.5	6,388.89	B1-5F	
J	이진아기념도서관	2005.9	2,756.50	B1-4F	2006건축문화대상 2006서울특별시건축상
K	전주송천도서관	2005.12	3,353	B1-3F	
L	노원정보도서관	2006.2	6,526	B1-4F	
M	충주시립도서관	2006.6	5,582.25	B1-5F	
N	구포도서관	2006.7	7,402.79	B1-4F	

#### 3.2.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두 단계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 조사방법 및 기간

조사	방법	기간
예비 조사	시설현황조사 및 행동관찰조사	2007.4 - 2007.6
본 조사	인터뷰조사 및 행동관찰조사	2008.6 - 2008.7

#### (1) 조사자 교육

경로추적 방식은 본 조사 시, 피 조사자가 조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추적행동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행동요령과 관찰 조사 시에 기록하는 내용들을 숙지시키

8)1991년 당시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서관정책 전담부서의 설립으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수직으로 증가시키는데 크게 기여함.

9)도서관법시행령[전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19963호] [별표1]<시행 2007.4.5>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고, 표기방법의 통일 등 조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인터뷰조사 시 조사자가 취할 태도 및 질문의 일반적 원칙, 프로빙(probing)기법에 대하여 교육한다.

#### (2) 예비조사

명확한 개념 및 영역의 설정규정, 연구조사의 실현가능성 탐진, 본 조사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전적·탐색적 조사로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소수 사례분석 등이 있다.

이 중 사전답사를 통하여 도서관의 전체적인 이용 동선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사의 대상 공간인 이용자공간설정과 관찰시점의 기준을 정하였다.

즉, 예비조사 시 입관 시부터 퇴관 시까지 전체행동을 추적한 결과 평균 3시간~5시간 사용하는 장시간사용자와 1시간미만 사용하는 단시간 사용자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입실 후 15분 이후부터는 이동이 없는 상태, 즉 체류성이 증가하는 시점으로, 도서관에 방문하여 목적으로 하는 실에 입실 후 20분 정도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 (3) 조사 협조 요청

대상 도서관마다 연구의 목적 및 조사개요를 밝히고 협조사항을 본 조사 전에 공문 및 전화를 통하여 협조를 요청 확인한다.

#### (4) 본 조사

##### ① 경로추적조사

각 도서관에서 약50명의 이용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들이 입관하는 순간부터 목표로 하는 실에 입실하여 약2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경로를 추적 기록한다. 단, 2인 이상의 그룹일 경우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일 경우는 한 사람을 기준으로 관찰조사지 상에 내용을 표기한다.

##### ②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과 인터뷰조사

조사자와 응답자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마치고 퇴관하는 이용객에게 미리 준비한 설문지와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사회활동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요구사항 등을 알아보며, 추적조사 시 부족한 내용을 조사 확인한다.

##### ③ 관찰내용에 관한 사진촬영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용객의 행동들과 그 행동들에 영향을 주는 건축적 요소를 함께 촬영하고 기록한다.

## 4. 조사 분석

결과적으로 인터뷰는 총 632명, 각 도서관 당 평균 45명이 응답하였으며, 관찰조사는 총681명으로 각 도서관 당 평균 49명이 조사되었다.

<표 4> 조사 분석 그래프 상 X축; 기능실 (영역)의 범례

범례 (기호)	기능실
1	도서자료실 및 정기간행물실
2	비도서자료실(디지털자료실)
3	일반열람실(학습실)
4	어린이 열람실
5	장애인/ 노인열람실
6	강당
7	강의실/ 학습실
8	전시실/ 전시공간
9	매점/ 식당
10	휴게실/ 휴게공간
11	연구실

### 4.1. 인터뷰조사

인터뷰조사는 전술한 5가지 사항(질문)을 토대로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범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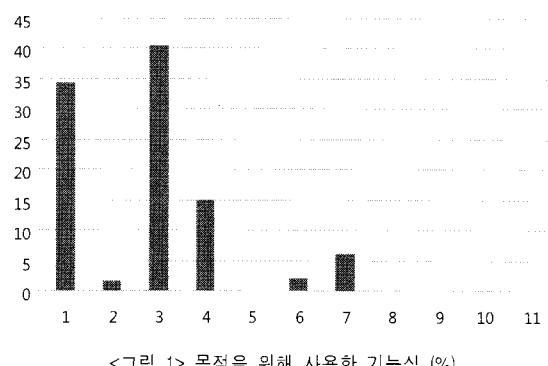
(1) 공공도서관 방문시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방문자의 목적유무 및 사용실을 조사하였다.

(2) 공공도서관 공간 내에서 가장 중심적 공간(major space)이라 할 수 있는 중앙홀을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식하는지 사적 공간으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위기 및 인접기능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3) 공공도서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요구를 알아봄으로써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내의 독특한 상황의 기능실인 일반열람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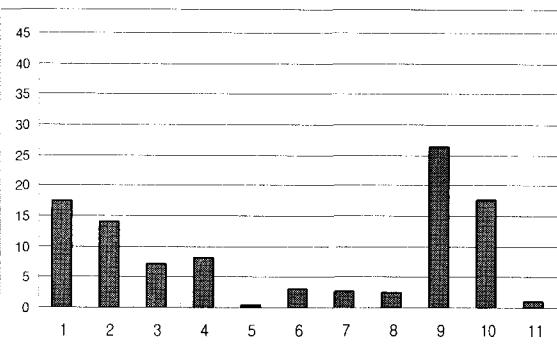
#### (1) 도서관에 방문시 목적 유무 및 사용실

응답자들 중 92%가 목적을 갖고 오며, 나머지 8%가 목적 없이 내관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 목적을 위해 사용한 기능실 (%)

실제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한실을 묻는 질문에서 일반열람실 (40.6%)> 도서자료실 및 정기간행물실 (34.4%)> 어린이열람실 (15.0%)>강의실 (6.2%)> 강당(2.1%)> 비도서자료실 (1.7 %)순으로 6개 기능실에 한정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주요 목적으로 개인학습을 위한 일반열람실의 비중이 제일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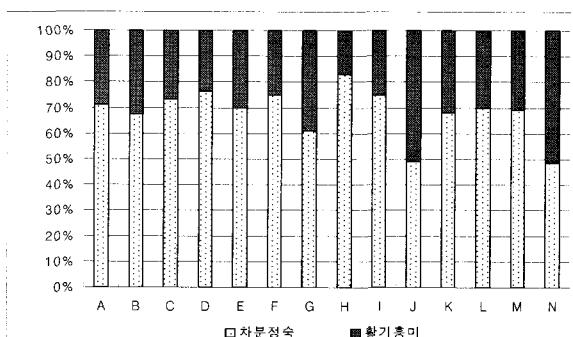


<그림 2> 주목적 이외에 사용한 기능실 (%)

또한 주목적 이외에 사용한 실로는 매점/식당(26.3%)> 휴게실(17.6%)> 도서자료실 및 정기간행물실 (17.4%)> 비도서자료실(14.0%)> 어린이열람실 (8.2%)> 일반열람실 (7.0%)> 강당(3.0%)> 강의실 (2.6%)> 전시실(2.5%)> 연구실(1.0%)> 장애우 및 노인열람실 (0.5%) 순으로 나타났다.

#### (2) 중앙홀(Major space); 선호도

도서관내에서 사회적 활동공간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중앙홀에 관한 질문으로, 도서관 중앙홀의 분위기 선호도는 조사에 있어서 결과는 차분하고 정숙해야함이 68%, 활기차고 흥미로워야함은 32%로 나타났다.



<그림 3> 각 도서관별 중앙홀의 분위기: 선호도 (%)

이유로는 이용자들의 사회 관념상 도서관은 차분하고 정숙해야하며, 공공장소이므로, 독서와 공부를 위한 공간임으로가 주요이유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도서관에선 중앙홀이 열람대기 공간으로 전락하여 대기공간에서 자신의 열람좌석을 기다리며 학습하기 때문에 차분하고 정숙해야한다는 의견 또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4> D도서관  
중앙홀 상부 (대기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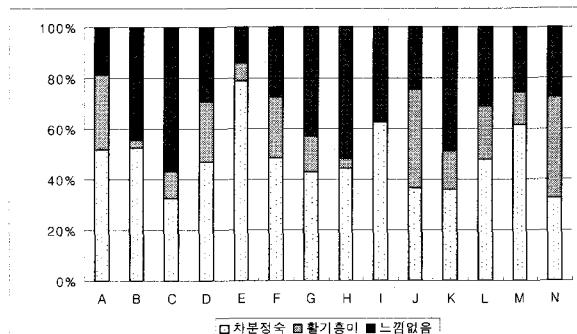
<그림 5> L도서관  
중앙홀 (대기공간)



<그림 6> H도서관  
중앙홀 (대기공간)

반면에 활기차고 흥미로워야 한다는 의견에서는 중앙홀은 도서관의 시작부분으로 다시 오고 싶은 친숙한 공간이길 바라며, 도서열람 및 학습전 또는 후에 휴게 및 만남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현 상황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정숙한 분위기가 37%, 활기차고 흥미로운 분위기가 39%, 아무느낌이 없다가 24%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특정한 분위기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림 7> 각 도서관별 중앙홀의 조사시점 분위기 (%)

이 중, J도서관과 N도서관은 선호도에 있어서 활기차고 흥미로운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에 비해 약간 높은 결과 상기 조사시점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분위기 또한 같은 결과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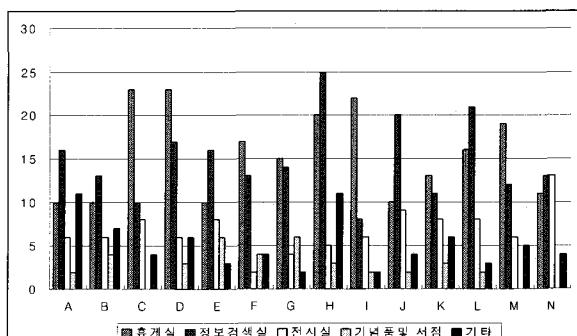
이 두 도서관들은 공간구성상 중앙홀을 중심으로 기능실들이 사방으로 둘러싼 회랑형(回) 구성으로 전총이 아트리움으로 오픈되어 있다. 그 기능 및 성격은 동선의 중심공간이자 전시 및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적인 성격의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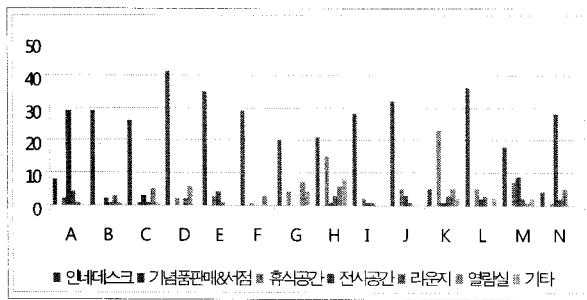
<그림 8> J도서관 중앙홀



<그림 9> N도서관 중앙홀



<그림 10> 각 도서관별 중앙홀과 인접하여 선호하는 실(명)



<그림 11> 각 도서관별 중앙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공간(명)

도서관 중앙홀과 인접하여 선호하는 공간(실)로는 휴게실(34.65%)>정보검색실(33.07%)>전시실(15.03%)>기타(11.39%)>기념품 및 서점(5.8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중앙홀에서 가장먼저 눈에 들어온 공간은 안내데스크(58.04%)>전시공간(14.51%)>휴식공간(12.41%)>열람실(7.34%)>라운지(4.20%)>기타(3.50%) 순으로 안내데스크가 대부분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들 중 A와 N 도서관은 중앙홀에 위치한 전시공간이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곳의 안내데스크는 방풍실이나 입구홀 측면에 위치하여 비중 있게 인지하지 못함을 인터뷰 조사시 알 수 있었다. 또한 K도서관과 H 도서관은 중앙홀의 휴게대기공간과 실외중정공간이 연결되어 비중 있게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2> A도서관  
안내데스크 및 전시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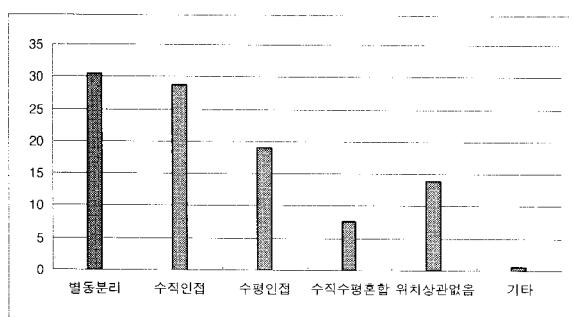
<그림 13> N도서관  
안내데스크 및 전시공간



<그림 14> K도서관  
중앙홀 휴게공간

### (3) 일반열람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실역할을 하는 일반열람실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있어야 한다는 96%로, 국내도서관사용자들의 인식 및 문화적 요구로 인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5> 일반열람실의 선호 위치(%)

선호하는 위치로는 별동분리(30.48%)>수직인접(28.67%)>수평인접(18.94)>위치 상관없음(13.84%)>수직수평혼합(7.58%)>기타(0.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열람실을 다른 도서관기능들과 분리되도록 별동으로 분리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과 충별로 분리하여 수직으로 인접하기를 바라는 이용자들이 과반수이상(59.15%)으로 기능상의 독립적인 성격상 다른 기능 실들과 분리되기를 바라면서 꼭 필요한 기능실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 A도서관  
일반열람실



<그림 17> B도서관  
일반열람실



<그림 18> N도서관  
일반열람실

다음은 각 도서관별 일반열람실의 위치 및 관계 상황을 나타낸 표이다. 일반열람실을 갖고 있는 도서관중 약 54%가 최상층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으며, 다른 기능 실들과의 관계상 대부분이 수직수평혼합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표 5> 각 도서관별 일반열람실의 위치 및 관계

도서관	일반열람실의 충별 위치	최상층 위치 여부	다른기능실들과의 공간구성 관계
A	3F	○	수직수평혼합
B	B1, 1F	×	수직수평혼합
C	3F	○	수직인접 (단, 열람휴게공간은 수평인접)
D	1F, 2F	△	수직수평혼합
E	3F	×	수직수평혼합
F	2F	×	수직수평혼합
G	無	無	無
H	3F	○	수직수평혼합
I	4F	×	수직수평혼합
J	無	無	無
K	2F, 3F	△	수직수평혼합
L	4F	○	수직인접 (단, 열람휴게공간은 수평인접)
M	無	無	기존건물(별동)
N	3F	×	수직인접

범례: ○=위치함, ×=위치하지 않음, △=최상층포함 다른 층 위치함, 無=존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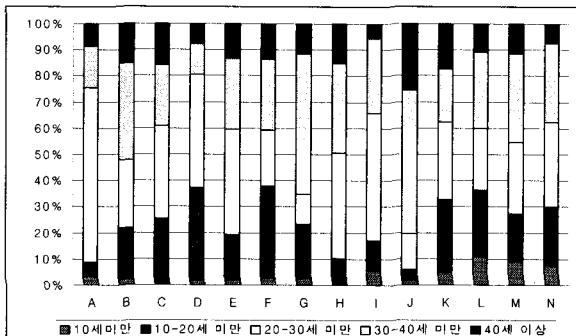
이에 국내에 이용자들의 요구 상 꼭 필요한 기능 실이며 가장 사적이며 정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일반열람실이 충별 위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있지만, 다른 기능실들과의 수평적 구성에 있어서는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일반열람실 이외에 서로 상호 교류 될 수 있는 실들의 역할을 상쇄시키고 있다.

## 4.2. 행동관찰조사

### (1) 피조사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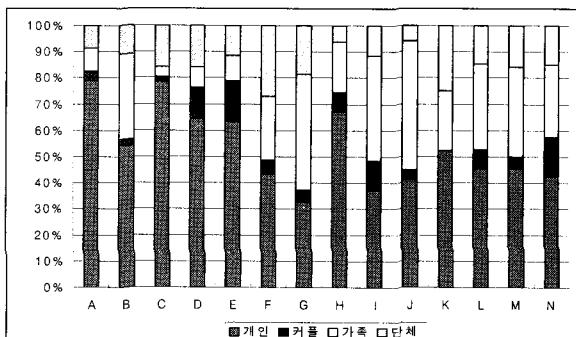
피조사자들의 연령대로는 20~30세미만(32.93%)> 30~40세

미만(30.45%)> 10~20세미만(19.86%)> 40세 이상(12.84%)> 10세미만(3.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도서관 별 피조사자들의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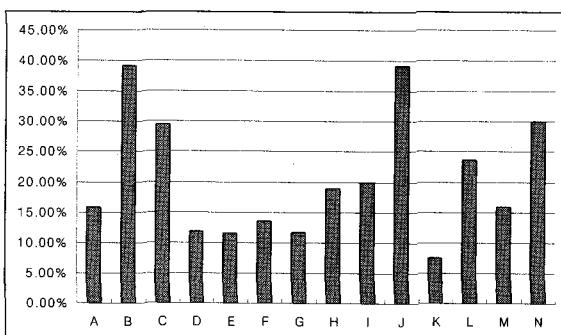
20~30세미만은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의 행동이 보여 지며, 30~40세미만의 이용객들은 대부분 가족단위의 내관자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어린이, 유아열람을 위해 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20> 도서관별 피조사자들의 구분(%)

피조사자들의 이용객구분으로 개인(53.36%)>가족(25.44%)>단체(14.55%)>커플(6.76%)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개인으로 내관하여 자료를 열람하거나 개인학습을 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이용이 많은 G, I, J도서관중 G, J 도서관은 진정한 공공도서관 문화인, 자료중심의 도서관 요구 및 최근 정보화도서관들의 운영프로그램상의 실험적 시도의 일환으로 처음부터 일반열람실이 계획되지 않는 도서관으로 개인열람자의 수가 적음을 볼 수 있다.

## (2) 피조사자 이동경로



<그림 21> 도서관별 목표실 이전에 1~3개실 방문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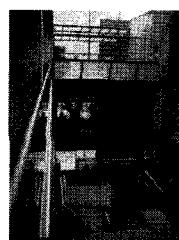
도서관에 방문하여 목표로 하는 기능 실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동경로를 매핑 조사한 결과 방문한 실수는 0개실(79.43%)> 1개실(17.29%)> 2개실(2.32%)> 3개실(1%)순으로 즉, 이용자 약 80% 경우 곧바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 기능실로 입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실 이전에 1~3개실을 방문하는 정도를 도서관별로 살펴보면 B, C, J, L, N 도서관들에 있어서는 다른 도서관들에 비하여 평균이상의 방문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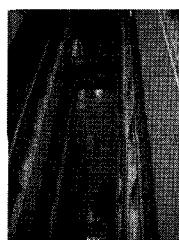
<표 6> 각 도서관별 중심홀·동선구조·시각적 인지성<sup>10)</sup>

도서관	중심유형		동선구조		기능실의 시각적 인지성		
	단일	무	회랑형/ 선택	선형/ 선택	대	중	소
A	(내부)		(내부)				●
B	(외부)		(내부)지하	(내부)차상	●지하		●지상
C	(외부)			(내부)			●
D	(내부)			(내부)		●	
E		●		(내부)			●
F		●		(내부)			●
G	(내부)			(내부)		●	
H	(외부)			(내부)		●	
I		●		(내부)			●
J	(내부)		(내부)		●		
K	(내부)			(내부)			●
L	(내부)		(내부)		●		
M	(내부)			(내부)		●	
N	(내부)		(내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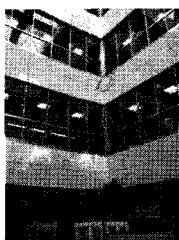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공간유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J, L, N 도서관들은 내부에 단일중심으로 갖으며, 내부 회랑형(回)구조를 보이고 시각적 인지성 또한 커서 다른 기능실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J도서관



<그림 23> L도서관



<그림 24> N도서관

또한 방문밀도가 높은 B, C 도서관들은 외부에 단일중심으로 갖으며, 내부 선형구조를 갖는 공간유형으로 도서관에 들어갈 시에는 외부중심공간을 인지하지 못하여 동선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그 중 C 도서관의 행동관찰 조사시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1층으로 입관하여 지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별 이동을 함을 알 수 있는데, 관리상의 이유로 1층 운행을 제한하여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에 따라 지하층의 매점 등을 이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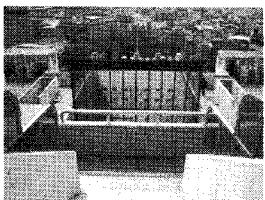
10)이수경·김용승, 현대 공공도서관의 회로경험에 따른 유형분류 및 특성, 한국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7권 3호(2008.6)의 <표 4>. 중심특성을 참고하였으며, 시각적인지성을 관찰결과 추가함.

시각적 인지성의 대·중·소의 판단기준은 각종 종양홀에서 11개 기능실을 대상으로 실들 입구의 시각적 보임의 개수 및 실 내부의 활동이 보이는지의 여부를 상호 비교하였다.

실태를 보이고, 열람대기를 하면서 외부중심공간을 인지하게 되어 이용정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B도서관은 지하층 썬큰 공간에서 시각적 인지성이 극대화되어 인접 기능실들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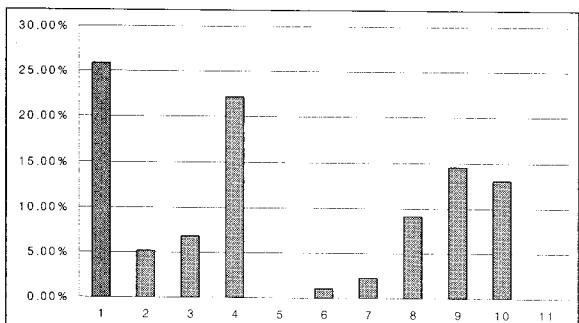


<그림 25> B도서관: 지하 썬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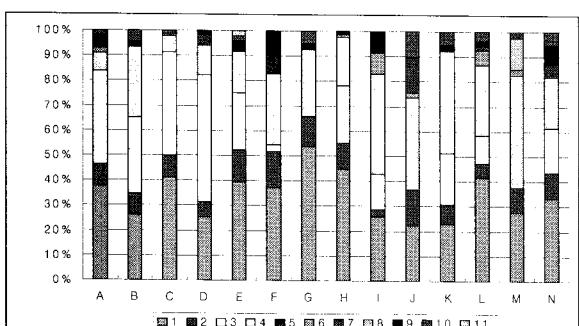
<그림 26> C도서관: 외부중심

곧바로 입실하지 않은 나머지 약 20%의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방문 후 목표로 하는 기능실에 도달하기 전까지 1개실에서 3개실까지 방문하는데, 전체도서관 평균은 도서자료실(25.83%)> 어린이열람실(22.17%)> 매점/식당(14.55%)> 휴게실(13.08%)> 전시실(9.09%)> 일반열람실(6.81%)> 비도서자료실(5.19%)> 강의실(2.26%)> 강당(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그림 27> 목표로 하는 기능실외 방문한 기능실(%)

도서관에 방문하여 목표로하는 기능실을 체류성을 토대로 관찰 체크한 결과, 전체도서관 평균은 도서자료실(34.23%)> 어린이열람실(25.47%)>일반열람실(19.51%)>비도서자료실(9.44%)> 매점/식당(3.33%)> 휴게실(3.00%)> 강의실(1.80%)> 강당(1.56%)>전시실(0.89%)>장애인/노인열람실(0.61%)>연구실(0.15%) 순이다. <그림 28>



<그림 28> 도서관 별 목표기능실 (추적조사)(%)

설문 인터뷰조사와의 차이점으로는 6개 기능실들에 국한되었던 목표실들이 전체 기능실들로 확장되어 사용됨을 행동조사 시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공간구성 요소에 있어서 자료의 열람, 교육 및 집회부분을 이용하는 것이 도서관에 온 문화적 양태이며 설문에 응한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객에 대한인지로 인하여 교육적 이벤트에 참여 한다는 동질성(Co-presence)을 느끼며, 공간구성상 심리적 이끌림으로 확장되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학습을 위하여 도서자료실의 열람좌석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여, 목표실을 도서자료실로 잡는 이용객들이 많아 도서자료실 이용객들의 점유는 일반열람실 이용객들을 편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5. 결론

14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방문자들의 행위를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국내도서관 이용객들은 대부분 뚜렷한 목적을 갖고 방문하고 있음을 인터뷰 조사 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적조사를 통하여 비교하였을 때, 이용자 공간 중 6개 기능실들로 국한되었던 목표실들이 전체 11개 기능실들로 확장되어 사용됨을 보여준다.

이는 도서관별 목표실 이전에 1개실 이상 방문하는 정도에 있어서 다소 높게 나타난 B, C, J, L, N 도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B도서관은 지하층 썬큰휴게 공간에서 시각적 인지성이 극대화되어 인접 기능실들을 이용하는 경우로 목표실 이외 보다 많은 실들을 방문·이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지상층의 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행동이 보여지지 않았다. 또한 C도서관은 이용자들은 1층으로 들어와서 지하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충별 이동을 함을 알 수 있는데, 관리상의 이유로 1층 운행을 제한하여 나타나는 행동으로 이에 따라 지하층 매점 등을 이용하는 실태를 보이고, 열람대기를 하면서 외부 중심공간주변 휴게공간을 이용하여, 목적실 이외 다른 기능실들을 방문·이용하는 행동이 이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J, L, N 도서관들은 공간유형적 특성상 내부에 단일중심으로 갖으며, 내부 회랑형(回)구조를 보이고 시각적 인지성 또한 커서 다른 기능실들의 접근성을 높여 목적실 이외 다른 기능실들을 방문·이용하는 행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2) 중앙홀의 분위기 선호도 및 현 상황을 조사한 결과, 아직 어떤 분위기로 정착되지 않은 시점으로 이 중, J도서관과 N도서관은 선호도에 있어서 활기차고 홍미로운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에 비해 약간 높은 결과 상기 조사시점의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분위기 또한 같은 결과로, 공간구성이 선호도에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 두 도서관들은 공간구성상 중앙홀을 중심으로 기능실들이 사방으로 둘러싼 회랑형(回) 구성으로 전총이 아트리움으로 오픈되어 전시 및 정위의 중심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 일반열람실을 갖고 있는 도서관중 약 54%가 최상층부에 일반열람실을 위치함을 알 수 있으며, 다른 기능실들과의 관계상 대부분이 수직수평혼합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다. 즉, 국내에 이용자들의 요구상 꼭 필요한 기능실이며 가장 사적이며 정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일반열람실이 층별위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분리되어있지만, 다른 기능실들과의 수평적 구성에 있어서는 인접하여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상 조사대상 도서관들의 일부에서 보여지고 있는 목표실을 포함하여 이외 다른 기능실들을 방문·이용하는 행동의 특징적 사항들은 최근 국내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이 보다 공공(public)장소로서 역할을 반영하여 나타난 상황들로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그 특징들을 보여주는 보다 구체적인 공간구성의 유형정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기초 및 검증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참고문헌

1. Lisa M. Given & Gloria J. Leckie, "Sweeping" the library: Mapping the social activity space of the public librar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5, 2003
2. 최재영·주석중,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7권 2호, 1997.10
3. 이상호·공순구·박고현, 공공도서관의 내판자 관내 행위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21호, 1999.12
4. 홍경철·오세규, 지역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2호, 2000.10
5. 김연웅·김승재,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전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권 2호, 2000.10
6. 이효성·이상호, 공공도서관 이용자 요구변화에 따른 공간구성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1권 2호, 2001.10
7. 김우영, 정보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보시설의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2
8. 송민희·이상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2권 2호, 2002.10
9. 이경훈, 건축물 성격변화를 통해 본 현대도서관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9권 8호, 2003.8
10. 김정희·이상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복합화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호, 2003.12
11. 이도영, 공공문화시설관련 연구: 인식론적 접근의 필요성 탐색, 한국박물관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9호
12. 김우영, 디지털시대 공공도서관 이용행위모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211호, 2006.5
13. 김정희·이상호, 공공도서관의 공간복합 연결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제19호, 2007.9
14. 김정희, 사회적 패러다임에 따른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체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 박사논문, 2007.6
15. 주명진·임영환, 공공도서관의 열람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7권 1호, 2007.10
16. 이수경·김용승, 최근 국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7권 1호, 2007.10
17. 장아리·황연숙, 공공도서관의 실내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

자인학회논문집, 통권 65호, 2007.12

18. 이수경·김용승, 현대 공공도서관의 회로경험에 따른 유형분류 및 특성,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68호, 2008.6
19. 장아리·손여림·황연숙, 공공도서관의 실내현황 및 사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통권 69호, 2008.8
20. 천혜선·이정미·임채진, 공공도서관에서의 행동장면을 통한 이용행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8호, 2008.8

<접수 : 2008. 10. 31>